

18일 Market Index			
↑ 코스피	5925.03	↑ 코스닥	1164.38
	(+284.55)		(+27.44)
↓ 금리 (연이자율)	3.261	↓ 환율 (원/달러)	1486.00
	(-0.063)		(-7.60)

metro® 경제



“자본시장 활성화하면 부동산 집중문제 해결”

청년 실업률 7.7% 5년만에 최고수준

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간담회
“한반도 분단, 지정학적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며 “과도한 부동산 집중 문제도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식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생겨난 지정학적 리스크가 문제”라며 “지정학적 리스크는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고,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주요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시장 불공정성, 경제정책 예측 불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정상 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 국이긴다고 한들 엄청난 파괴와 살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쌍방이 모두 피해를 입는다. 웬만하면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 다만 과장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긴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의 1.4배가 넘고, 재래식 군사력 평가는 세계 5위를 기록한 사실을 언급했다.

또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특이한 재벌구조에서 계속 발생하는 문제”라며 “분명 알토란 주식을 샀는데 어느 날 보니 알맹이만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내가 가진 주식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언제 그런 일 겪을지 모르니 당연히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며 “지배권 남용·경영권 남용이 첫 번째 문제”라고 부연했다.

시장 불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의지를 또 한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꿈도 꿀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해서, 주가를 조작할 경우 동원된 원금까지 몰수하는 것을 실제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문제는 주가조작 관련해서 신고 포상금을 몰수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고 가담자의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감면제도) 도입 등과 금융감독원의 조사·단속 인력 대폭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데이터처, 2월 고용동향

지난달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이 상승했으나 15~29세 고용률은 22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또 이들 청년층은 실업률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3만4000명(0.8%) 늘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새 가장 큰 증가폭이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20대(-16만3000명)에서는 뒷걸음질했다. 40대는 변동 없이 유지됐다.

고용률은 61.8%로 전년동월에 비해 0.1%포인트(p) 올랐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되레 1.0%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내림세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9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4000명(5.7%) 증가했다. 실업률은 3.4%로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이 중 특히 15~29세 실업률은 7.7%로 1년 만에 0.7%p나 뛰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10조 자사주 소각·배당... AI 투자확대”

‘칩플레이션’ 삼성·애플, 원가절감 사활

삼성전자, 57회 정기 주주총회
“작년 매출 333.6조 사상최대 기록
한국기업 최초 시총 1000조 돌파”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DS부문장이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삼성전자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각각 10조원대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과 함께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주주와 기관투자자,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총에서는 지난해 경영 성과와 함께 올해 사업 전략, 주주환원 정책 등이 공유됐다.

주총 의장을 맡은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매출 333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주가 상승으로 한국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설명했다. 전 부회장은 “지난해 기술 경쟁력을 반성하고 회복을 약속드렸다”며 “저희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그 약속을 지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AI 사이클 기획을 적극 활용하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올해 반도체 시장에 대해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투자 효율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메모리·파운드리·로직 설계·칩단 패키징을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기반으로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메모리 경쟁력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HBM4 등 AI 및 서버용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시장에 대응하고 전 제품 품질 우위를 확보해 경쟁력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4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양사, 폴드 신제품 출시 앞두고
기능조정·보급형 전략 등 고심

칩플레이션(반도체 가격 상승) 여파로 삼성전자와 애플이 하반기 출시할 폴더블폰 가격 인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주요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다만 양사는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가 절감과 제품 전략 조정에 나서는 등 대응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 폴드7(265GB)’ 모델은 약 237만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신작은 주요 부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따른다.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애플의 첫 폴더블폰 역시 최대 400만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두 번째 접는 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359만원 가격대로 형성돼 소비자 부담

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향후 출시될 신제품 가격이 이를 웃돌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출시 3개월 만에 판매를 종료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높은 제조원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통상 스마트폰 제조 원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칩 가격 상승은 스마트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삼성전자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지난해 AP솔루션 매입 비용은 13조 9272억원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했다. 이에 최근 발표한 갤럭시 S26 시리즈의 국내 출시가격을 최대 20만 9000원까지 인상한 바 있다.

폴더블폰의 경우 접힌 구조를 지탱하는 힌지와 제품 경쟁력을 좌우하는 디스플레이의 원가 비중이 AP 못지않게 크다. <2면에 계속>

/차원정 기자 hyeon@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일본·카타르·사우디에 감사 서한... “한국민 중동 대피 적극 협조”
▲정성호 “이재명 대통령 개헌 검토 지시...법리 검토 본격 착수” /사진 뉴스시스

▲與김용민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도 남겨서는 안 돼”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절차 더 진행 안 한다”

▲송언석 “공소청·중수청법 본회의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동원”
▲조은희 “장동혁 안 바뀌면 서울 선거 따로 치러야...별도 선대위 불가피”